

# “불황극복 위한 정보제공 최선”



대한인쇄문화협회  
민재기 회장

인쇄문화산업 종합정보매거진을 표방하며 창간한 월간 프린팅코리아가 벌써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특집 기사와 국내외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많은 독자들로부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우리 업계의 정론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인쇄인을 비롯한 애독자, 광고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같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업계 발전을 위한 기획과 인쇄의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 칭찬과 비판의 조화를 이루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편집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과 정론의 길을 걷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인쇄인들의 단합과 미래를 향한 지름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편집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이 있는 한 '정론직필'의 창간 정신은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요즘의 인쇄업계 경기상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인력난과 자금, 물량난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며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가와 이라크사태, 중국의 경기변화 등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내적인 불안요소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곧 개선되리라는 기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쇄인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우리 인쇄인들은 지난 1천년 동안 인류문명을 이끌어 온 주역이었습니다. 일제치하와 6·25 전란을 겪으면서도 민족문화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인쇄문화산업은 지식 정보산업의 핵심으로, 수출 전위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격변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인쇄문화의 맥을 찬란하게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조들의 위업을 거름삼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여 미래를 준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일에 우리 협회와 프린팅코리아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프린팅코리아는 앞으로도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업계의 화합과 인쇄문화의 미래를 여는 안내자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는 인쇄인과 독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앞으로도 애독자 및 광고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본지 발행인>